



“도약” 주님의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

마침내 주님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20주년 기념사업의 주제를 “도약”으로 정하고 연초부터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되고 준비되어 이미 진행된 행사도 있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행사도 있다. 먼저 도약의 준비로 20주년을 맞아 주님의교회의 엠블렘(교회로고, 교회글꼴, 교회상징 등)을 표준화하고 “21세기 한국사회에서의 교회의 바람직한 위상” 등의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으로의 도약은 주님의교회 교우들과 내부적으로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회의 성장과 시대적 사명에 걸맞은 교회가 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창립기념주일(6월 29일)에 비전선포식을 가질 것이다. 또한 교회의 공인된 정사를 편찬하여 내부적으로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밖으로의 도약은 교회를 향한 시대적인 요청들에 부응하여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아대책과 함께 하는 자선바자회’가 4월 26일(토)에 있었고, 금난새가 지휘하는 유리시안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가 6월 21일(토)에 열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의 위상을 더 높였다. 창립기념 주일 당일(6월 29일)에는 퇴임식(3부)과 임직식(4부) 그리고 창립기념예배(오후 3시 30분)로 드러진다. 앞으로 진행될 행사로는 ‘20세를 위한 음악회’와 ‘청년부 및 30CUP: 젊은이를 위한 20주년 기념 음반제작’의 일환으로 CCM CD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강찬 목사

2008년도 향존직 선거 -기도하며 많은 참여 기대



2008년 향존직 선출은 지난 3월 정기당회에서 의결 통과한 ‘2008년 주님의교회 향존직 선거규정’에 의하

여 현재 진행되고 있다.

공고된 확정 향존직 후보대상자(장로 20명, 권사 60명, 안수집사 60명)는 주님의교회 향존직자 170명중 155명이 참여하여 2008년도 향존직 후보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추천된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득표순 자격심사 후 2008년도 임직대상 인원의 3.0 배수로 하여 당

회에 회부하고, 당회는 무기명 투표로 2.0배수로 최종 확정 후보대상자를 결정하였다. 당회에서 확정된 각 확정 후보자의 순번 기호는 득표순이 아닌 추첨(제비뽑기)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나이 만19세 이상으로 2007년 6월 29일 이전 등록자로서, 등록한지 만1년 이상 된 세례 교인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향존직 선출 1차 투표는 2008년 7월 6일(주일)에 실시하며, 정해진 임직 대상 인원(장로 10명, 권사 30명, 안수집사 30명)이 미달될 경우 2008년 7월 13일(주일)에 2차 투표로 득표순 1.5배수로 투표한다.

선거관리위원장 박호길 장로



창립20주년 기념 예배

이사야 43:19-21 마태복음 13:31-32

비전-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12 알곡 공동체

가치: 1) 기도 2) 생명 3) 공동체 4) 의로움 5) 나눔과 섬김 6) 기쁨 7) 최선

전략: 1) 체계적인 말씀 사역 2) 선교 공동체로서의 소그룹 활성화 3) 하나님의 나라 백성 훈련 4) 교회 지원과 개척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5)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 6)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육 목회 7) 통합적 복지 선교 사역

비전: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즈음 많은 교회들이 유행처럼 비전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헌신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처해진 시대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번 20주년의 주제를 정하면서 '도약'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든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할 단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모든 일을 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교인들과 교회가 이 비전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모습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알곡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 된 성도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씨들이 뿌려져도 그 가운데서, 진정 열매 맺는 것은 몇 개의 씨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몇 개의 씨들이 오히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12명 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로마라는 대 제국 앞에 겨자씨보다 더 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교회가 훗날 독수리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을 삼켰고 로마 제국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알곡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 하나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홀로 버려지면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항상 적어도 두 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 하고 이들이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12명이 모였을 때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모든 교회의 DNA는 바로 열두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셋을 비전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알곡과 그리고 12명의 공동체입니다.

가치 1)기도 2)생명 3) 공동체 4) 의로움 5) 나눔과 섬김 6) 기쁨 7) 최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졌기에,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겠습니까? 이를 우리는 이들이 가진 "가치"라는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가치라는 말은? 바로 이들이 가진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신이라고 말씀드리어도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기도를 최우선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가장 우선으로 여깁니다. 다음으로 생명이라는 가치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생명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어렵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체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서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시 화해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기쁨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음으로 의로움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예산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모든 일을 바르게 하겠다는 우리들의 선언입니다. 무엇을 하든 바르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의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가치는 바로 의의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나눔과 섬김의 가치입니다. 이미 저희 교회는 이 정신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나눔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쁨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의 가치를 최선으로 정했습니다. 최선이라는 말은 모든 일을 행하되 열심히 하라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의 열심히 들어가야 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선이라는 가치를 마지막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선택한데에는 교육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 교육의 중요성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웁니다. 아울러, 말씀을 충실히 배울 때, 세상의 모든 학문을 분별하는 눈도 가집니다. 아울러 이곳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전략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비전을 정했고 정신을 정했으면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 위한 알곡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입니까? 7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는 온

힘을 다해 말씀 사역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하고 있는 성경 공부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지금 약 1200명 정도가 1단계를 마쳤습니다. 2단계에는 더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모든 교우들이 꼭 성경 사역에는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힘써야 부분이 바로 선교 공동체로서의 소그룹 활성화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 구역이 매주일 모이지만 생각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은 편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구역들은 열심히 모이지만 많은 구역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약 25프로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모든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도가 활성화됩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전도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우리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러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소그룹 활성화입니다. 아울러 소그룹이 선교를 담당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되는 훈련과정입니다. 요즈음 제자와 훈련이라는 과정입니다. 10명 이내의 교인들을 시간을 두고서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경건을 훈련하고 삶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은 올해와 내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2010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교회를 지원하고 개척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입니다. 아울러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하는 형태를 달리하는 것도 포함되고 다양한 종류의 예배도 포함될 것입니다. 현재에는 주일날 같은 예배가 4번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한 두 예배는 다른 형태를 드리도록하고, 특별히 새신자를 중심으로하는 예배도 중요한 예배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교육 사역입니다. 이제 교회 교육도 한 단계 도약해야 합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앞으로 당연히 교회 교육은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전문화에 대한 투자도 따라야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교회 교육이 학교 교육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학교 교육을 위해서 교회 교육이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복지 사역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좀 더 가까이 지역 사회로 다가가고 그들이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무지개 축제는 좀 더 준비하면 지역 사회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지난 주에 있었던 지역 주민 초청 금나새 음악회도 많은 분들로부터, 긍정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사역도 우리가 감당할 사역이고, 외국 이민들을 위한 사역, 탈북자 사역, 노인 사역, 환경 사역 등은 모두가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사역들입니다.

건너가게 하소서!! 성극 준비를 하며

2008년 수련회는 전교인 수련회로 열린다. 이번에는 참석 교인들 성막 체험과 첫날 저녁에 교인들과 함께하는 성극을 공연한다. 6월 11일 첫 모임을 가지고 대본을 받았다. 전부 4막 7장으로 구성된 “건너가게 하소서” 라는 성극이다. 대본만 해도 77페이지나 되고 공연 시간만 1시간 20분 정도 된다. 수련회 시간과 아마추어 연기력에 맞추어 각색하여 가데스에서 모압평지까지 가는 6개월간의 여정속에서 겪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가 겪는 파란만장한 광야의 삶을 극적으로 연출한 성극이다. 특별히 지도자인 모세의 신앙적인 고뇌의 고백들은 보이는 이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줄 것이다.

성극은 두개 교구에서 한 개의 막을 맡아 연극을 연습하고 공연을 한다. 배우들은 장로님으로부터 올해 처음으로 등록한 교인까지 다양한 교우들의 참석으로 그 열기가 대단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인 모세는 대사가 많은 배역임에도 불구하고 70세 드신 장로님이 주인공 모세 역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매우 열정적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던 모세, 시시때때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40

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순종하던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청청벽력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절규하며 원망하는 장면이 이 성극의 압권이다. 이 성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알신앙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과 모압 족속의 유혹에 넘어가 이방신을 섬기는 엄청난 죄에 빠져서 백성들 사이에 혼란과 분쟁으로 내분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울먹이며 건너가게 해주소서! 건너가게 해주소서! 기도를 드릴 때 주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은 백성을 살려보려고 했던 기도 때문이라 했다는 대사를 연습할 때 현재 우리가 사는 이세상에서 위대한 지도자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험한 세상 속 몸부림인데 연극을 열심히 연습하는 교우들의 모습에서 삶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본다. 시기와 질투 불평함에 자신을 극복하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연극을 연습하는 시간이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됨을 느낀다.

수련회 첫날 밤에 교우들과 서투른 연극이지만 정성을 다해 열심히 연습을 하여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모세의 마지막 부르짖음처럼 주여!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사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만이라도 기억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모든 것 내려놓는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의 통로를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형섭 안수집사(4-18)

성막체험! 우리 평생에 한 번으로도 벅차다.



2008년 5월 11일, 전교인수련회 행사 중 하나인 [성막체험]을 위하여 성막제작팀이 구성되었다. 우리 평생에 한 번 있기도 힘든 성막제작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성막제작본부에서는 총괄만 하되 각 지파에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며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 참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시며 이번 성막체험의 주된 목적이 ‘전교인 참여’ 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2008년 5월 25일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준비사항으로 12지파가 결정되었고 지파별 분담사역 내용이 있는 기본지침서와 일정이 통보되었다. 2차(6/1), 3차(6/8)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지파간 협력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본부 지원사역의 확장 및 자문팀의 적극개입 등으로 눈에 보이는 진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본

부와 지파 간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완성시켜 나아갔다. 분야별로 전문 사역팀이 나타났고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성막 짓는 자들처럼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분들이었다. 우리는 맡은 바 분담사역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가운데 그 당시 지혜로운 자들로 성막제작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임하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다.

교회 지하주차장 한 모퉁이에서 목공사를 시작하면서 성막제작 공정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6월 23일부터는 도장공사가 시작되었다.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공동제작 작업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가 교우들이다. 그 분들은 ‘나의 일생 중 언제 이렇게 성막제작에 참여해 보겠는가?’ 하며 너무나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다방면에 숨은 인재를 만나게하시고 그들로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며 또한 전도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게 하심으로 [성막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처음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부족한 일정과 제작과정의 어려움들이 이제는 서로 간 격려하

며 협력하는 가운데 또 지혜를 모으는 가운데 모든 순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은 ‘인간이 계획하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아직은 중간 진행단계이다. 7월 6일 사전에 제작해보는 예행연습에서 우리는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미비점을 체크하여 보완작업을 끝으로 2008 전교인수련회 [성막제작 및 체험]의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정원영 안수집사(6-7)



2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의 메시지

우리를 인도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교회에 출석한지 13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1997년 우연히 참석한 말레이시아 단기선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칼리만탄 정글 한가운데서 새롭게 만나주시고 선교의 장으로 이끄신 이후부터 선교에 관련된 일이라면 물불을 안가리고 해왔다.

주님의교회는 3-4년 전부터 믿음의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 선교이야기, 선교학교를 통해 선교 사역을 섬기고 있다. 박원호 담임목사님은 "믿음의 결국은 선교다"라는 말씀을 하

신다. 내게는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결국은 선교로 가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우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지금은 교회에서 선교문화가 보다 보편화되어 어느 선택 받은 사람들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믿음의 분량대로 어느 처지에 있던 그곳이 바로 사역지이고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적어도 많은 구역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의 메아리가 울려 퍼져야 하고 선교중보기도 모임에는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야 한다. 여름에는 휴가를 반납하고 단기선교를 나가는 팀들로 교회가 시끌벅적해져야 한다. 그리고 장,단기 선교사로 많은 분들이 헌신하는 때, 그때가 속히 오기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주님의교회로 인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손영익 안수집사 3-2) 다

20주년을 축하하며

14년 전, 본질적인 것은 무시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다른 교회에 실망한 후, 참 신실한 교회를 갈망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교회를 인도해주셨다.

꿈 같고 진정 천국의 모형이 이런 것인가 싶으리만큼 매일 매일이 즐거운 파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교회생활을 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제 나 혼자만 누리는 이 땅의 천국이 아닌 다 함께 누리는 이 땅의 천국을 성년 20주년의 주님의교회에 기대해 본다.

성도님들과 주님의교회 생일을 축하드린
(최정윤 권사 1-10)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할래요

주님의교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다녔다. 초등학교 때는 유소년 축구를,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반가운 학교에 다니며 요즘은 드림도 배우고 있다.

최근에 세례를 받았다. 엄마 말씀으로는 이제 하나님나라 시민이니까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세례를 받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된 후 사고치는 행동을 안 하도록 조심하며 행동한다. 중3이 되고 나서,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하고도 싶지만 못하는 것들이 많다. 고

등학교 진학도 나 혼자 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물어보며 구상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나도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것이다.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해 내기 위해서 지금은 준비하는 때라고 생각한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자라야겠다.

주님의교회 20주년 축하하면서 믿음을 더욱 굳게 가져려 다짐한다.
(중등부 3학년 조성우)

주님의교회 20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20살의 주님의교회 생일에 지난 세월 무작정을 달려왔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뒤돌아 봅니다.

그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말씀을 사모하였고 찬양이 흘러나오기만 해도 따라 부르고 마음의 눈물이 흘러나와 주체를 못했고 내가 출석하며 정성을 다해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아무나 붙잡고 자랑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구역 식구들과 연말에 하나님의 상을 타겠다고 새벽 특송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성경을 한절 한절 표시해가

며 읽어가기, 전도를 열심히 하며 보람을 느꼈던 일이 생각납니다.

추수감사절과 여름 수련회에서 찬양과 연극 연습으로 집집으로 모여 교제를 나누었던 추억들과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의 뜨거웠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 구역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교회가 더욱 회복되어 먼 훗날에도 주님의 귀한 참뜻 계속 이루어 나가 영성과 기도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경원 권사(7-6)

창립20주년의 회고

1988년 6월의 마지막 주일, 교회 창립의 뜻을 함께한 교우들 50여명이 모여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로부터 20년을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이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는 그때의 100배가 훨씬 넘을 만큼 창대해졌습니다. 오늘의 성년을 맞을 수 있기까지의 지나온 나날들에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있었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마주했던 위기속에도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애쓴 교우들의 숨은 헌신이 교회를 성년으로 키워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을 준비하면서 논의되었던 많은 사안들 중의 중심과제는 당연히 어

떤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재정의 50%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선교와 구제에 역점을 두는 비전은 주님의교회 창립정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창립예배에서 드려졌던 첫 헌금이 전라남도 묘도에 그 섬이 생긴 이래 첫 교회의 건축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지난 20년 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선교와 구제사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처소로 사용 중인 정신학원의 건축과 남양주에 위치한 동화학원에 길가에교회를 세워 독립시킨 것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우리교회 창립정신의 결실이었습니다. 교회를 드나들때 마다 마주하는 강당건물을 보면서 건축을 이루어 내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헌금을

모았던 우리 교우들이 자랑스럽고 이런 교인들로 양육해온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것이 또한 자랑스롭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중대한 전환기에 때맞춘 4대 담임 박원호 목사의 부임은 이 교회를 맡기고자 예비된 주님의 선택이었음이 날이 가면서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2단계 성경공부는 성경을 통털어 섭렵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4년여에 걸친 대장정의 도전으로써 우리 교회를 말씀의 반석위에 반듯하게 세우는 제2의 창립이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이 대장정에 2,000명이 넘는 교우들의 대거 참여가 일찍이 우리 교회에서 없었

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년이 된 주님의교회는 20년 전에 주님과 약속했던 창립의 정신을 무겁게 인식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가는 일에 모든 역량의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모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사역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명실공히 주님의교회로 불리우는데 부끄럼 없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의 성년을 맞이까지 이끌고 돌보신 주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스무번째 생일을 온 교우들과 함께 자축하고자 합니다.

황기언 사임장로

나의 사랑, 나의교회

저는 1991년부터 주님의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장로로 섬겨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발전해 오는 과정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 셈이지요.

저는 교회에 등록한 그 해 여름 전 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그 후, 집사와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시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열

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의교회를 섬겨온 지난 18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으로서, 저와 제 가족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어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사랑의 빛을 쬔습니다. 성도님들은 믿음도 약하고 흠도 많은 저를 늘 따뜻하게 품어 주셨고 때로는 뜨거운 기도, 때로는 따가운 충고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년이 된 우리 교회의 온 교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안으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밖으로는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함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권오승 장로

주님께 날을 기대하며

‘이번에 끝냅시다. 성준군!’

2007년 11월 14일 수요일 저녁에 걸려온 교구 담당 이호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수능 전 날 목사님께서 전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전 해 수능 전날에도 전화를 해주셨던 터라 기도하시기 전에 이번에는 끝내자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었다.

나와 교회와의 인연은 꽤 오래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꾸준히 다녔으니 거의 십여 년이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나는 세상에서 성숙시키지 못했던 내면적,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철이 들었고 고나 할까?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나의 힘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만난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학교 시절의 선생님들은 큰 사랑으로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셨고, 이 덕분에 빠듯어지기 쉬웠던 사춘기를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의교회를 통해 성장하였다.

한 주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큰 기쁨을 느끼는 하루가 바로 주일이다. 그날 나는 하나님과 이웃과 특별히 만나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하고 기쁘다. 지난 20년간 하나님과 함께한 주님의교회이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엄성준(청년부)

생명력 넘치는 우리교회

오늘은 우리교회가 2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20이라는 숫자는 젊고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 생동감 있는 숫자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으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여중고를 다녀서 그런지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커다란 나무와 같이 듚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구한나(고등부)

친정같은 주님의교회

1994년 가을 처음으로 YMCA에 있던 주님의교회를 찾던 날이 지금도 기억 속에 또렷하다.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2년간의 연수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친지들의 권유로 주님의교회를 찾게 되었다.

그 후로 10년간 주님의교회를 섬기면서 구역예배, 성경공부, 교회봉사에도 조금씩 참여하면서 크리스천의 삶을 한걸음씩 배워나갔다. 주님의교회 세례를 받았고 부모님과 딸도 세례를 받았다.

주님의교회는 제게 신앙의 친정같은 곳이다. 지금은 백주년 기념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주님의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던 추억이 고스란히 묻혀있는 곳이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던 나를 이끌어준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들 모두가 그립다.

늘 주안에서 함께 있음을 믿으며 창립20주년을 축하한다.

(백주년 기념 교회 전 경화 집사)



지난 6월 21일(토) 오후 7시30분, 교회는 교회창립 20주년을 맞아, CBS기독교 방송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는 금난새가 지휘하고 유라시안 오케스트라단이 협연했다.

Symphony in Church (예배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음악회)



강당을 꽉 채웠다.

금난새 초청 음악회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서

초청대상자들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문화소외계층, 장애인들, 지역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공서 공직 근무자 정신학원 교직원, 학생, 학부형 등 그리고, 주님의교회 성도및 성도가 초청하여 모시는 믿지 않는 분들로 2100석이 넘는 큰

현 양이 협연하였다.

음악회는 시종일관 어려운 클래식 연주를 쉽게 설명해 주며 즐겁게 진행되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주회에 몰입하였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임서현 양이 협연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교회 20주년을 기념하여 반석위에 세운 교회를 특별 연주할 때에는 교회 및 진 비전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설레이기도 했다.

최사라 기자

창립20주년 기념음악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4부 임마누엘찬양대는 두 돌이 채 안되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찬양대다. 그런 우리 찬양대에게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를 준비하라는 목양사역본부의 명이 올해 초 떨어졌다. 미숙한 우리가 이 큰 행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다. 걱정스런 목소리로 권덕원 지휘자에게 말을 꺼내니,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해야지요.” 지휘자는 1-3부 찬양대에 50명 지원요청을 했다. 그런데, 합동연습하기로 한

5월 10일 첫모임에 겨우 10여명이 모였다.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한참 동안 걱정으로 어둡던 내 마음에 불현듯 감사한 마음이 생겨났다. “만일 처지를 바꿔보면 나는 어떠했을까? 틀림없이 이런저런 핑계로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당일 연습에 참여한 10여명의 1-3부 찬양대원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알게 된 또 한가지 사실은



지난 20년동안 주님의교회가 사랑받은 이유이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첫 행사이기에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책망하기는 커녕 오히려 칭찬과 격려로 감싸주신 하나님과 온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익환 집사(46)

창립20주년 우리교회의 새

본 교회는 창립 20주년 (6월 29일)을 맞아하여 성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여러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양적 질적 성장을 계속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20주년은 당회장 박원호 목사님을 모시고 새비전을 선포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편집부는 목사님을 찾아 현대교회의 문제점과 우리교회의 새 비전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이강찬, 신형섭, 하태원, 채지민
(이하 이 신 하로 표기) -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신: 창립20주년을 맞아하여 목사님의 새비전을 듣고 싶어 찾아보았습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방에 불은 항상 켜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

▶하- 현대사회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성경이나 진리의 말씀을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말씀 전파 역시 쉽게 이루어져 평신도 사역이 가능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성성을 객관화, 과학화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교회의 신비감과 존귀성이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교회는 대형화되어, 세속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 역시 익명성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봉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설교로 귀를 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속적 가치를 따르다가 말씀이나 봉사로 부담을 주면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영동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신앙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들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는 교회”는 비신앙적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행동(자신은 신앙적 실천을 안함)과는 전혀 다른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참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 교회는 본격적으로 영성운동을 전개하고 성경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적인 형태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전환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러한 현대사회 교회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목회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아 네. 오늘날 교회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현대 사회가 정보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평신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평신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교회가 개방되어도 신성성이 있어야 하므로 바른 권위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윤리적인 삶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자료가 모두 개방되어 있으니 목회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또 목회자는 목회에 자신이 있어야 하므로 목회자도 항상 준비되어야 하고 평신도들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비전이나 목회방향도 서로 협력해나가는 동역차원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 목사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을 구약공부때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동역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목사님은 바울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은 바나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교회는 헌신하는 분이 많아

누가 무슨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합해지면서 목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1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성도들의 헌신이 매우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 밖에서 들은 얘기로는 강남사람들이고, 대형교회이고, 주차장이 좋으니 기대(?)하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것을 기대하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서 보았을 때 어느 교회 못지않게 헌신을 많이 하시고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멤버는 어느 교회보다 많은 것 같아서 그들에게 바람이 매우 많습니다. 12단계 성경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부족한 부분을 훨씬 잘 보완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자신이 있습니다.

익명성 교인은 교역자들이 일으켜세워야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성 교인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7년,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등록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점은 교육자들이 일으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활절 때 카드를 보내

드렸을 때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며 -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에게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 모두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성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우리 교회에 의외로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다른 교회에서 억압적으로 일과 봉사를 요구받았던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어서 숨어계셨던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제는 성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물질의 세속화가 큰 문제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대형화보다 세속화입니다. 무얼 보고 세속화라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지만 한국교회는 물질의 세속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교회에 워낙 다양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촛불시위 현장에 가보았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데,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부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힘든 분들이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먼저 생활을 낮추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이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헌신하자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중적 사고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기도

이중적 사고와 같은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외부적 요인 또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외부적 요인으로서 이중적 사고를 만들게 됩니다. 정치는 공적영역, 종교는 개인적 영역을 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앙인이 이중적 사고의 원인은 교회내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을 좌악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보수진영의 교회들이 더더욱 교회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커져 가는데 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 자체의 문제입니다.

▶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중적인 사람은 행동이 신앙인에 어울리지 않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입으로만 말씀을 주장하는 예배꾼이 등장해 그 잣대로 목사님, 장로님, 신도들을 평가하니까 분파를 만들게 되고 대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 생각으로는 목회교육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

비전

비전1_하나님의 나라를 중시하는 교회 비전2- 모든 성도들이 알곡인 교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하는데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니 이중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 지금까지 현대교회의 문제점인 익명성, 교회의 세속화, 신앙인의 이중성에 대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구현해야 할 영혼이고 현대사회의 한 측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창립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교회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비전1_하나님의 나라를 중시하는 교회 비전2- 모든 성도들이 알곡인 교회

비전은 여러 개 거창한 것보다 심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알곡화' 작업하는 것을 목회의 우선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알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는 것이 알곡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심플한 한 마디로 선포할 수 있을지 생각 중입니다.

▶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말씀의 심화>로, 즉 성경을 아는 것? 믿는 것? 행동하는 것으로, 알곡화 작업의 개념을 <모든 구성원들이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을 정도로 키울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이 신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비전은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의 큰 비전을 제시하여 내놓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것 등 세부적인 것들은 비전보다는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알기

① 전략 중 하나로서 열두 단계 말씀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내용이 깊어지는데 이러한 말씀사역이 집의 기초처럼 가장 급선무입니다.

하나: 전교인의 일대일 사역자화 하기

② 집중적인 일대일 사역도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제자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자화'보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의 이미지가 강한테 이러한 제자의 의미를 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 등 다른 개념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는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집중적인 말씀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정도를 잡고 매주 만나서 제자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도덕적 생활, 변화시키기 위해 봉사한 삶 등을 매주 점검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만들어나가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들어 키우게 되면 그 분들이 커서 또 다른 사람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역이 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평신도들도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평신자도들을 사역자화하는 것입니다.

▶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일대일 집중 사역이 물론 좋지만 우리 교회가 하기에는 이미 너무 덩치가 커져 버렸지 않나 싶습니다. 집중 사역을 위해서는 핵심그룹이 있어야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담임목사님이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사역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문제지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살아있고 열려있는 구역모임 하기

③ 그래서 구역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구역이라는 것은 본질이 확인되어야 하고 전도하는 것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친목단체처럼 폐쇄화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나누어져야 되고 개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직접 부딪히고 직접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마치 최전방 부대와 같습니다. 사역의 활성화를 모두가 조금씩 성사할 수 있도록 1인 1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청소년 사역의 활성화

④ 청소년사역과 학원 사역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청소년사역을 위한 학원 사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대상학원과 뜻을 같이하면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뜻을 함께 하지 않으면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청소년사역을 위해 교회와 대상학원이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기독교학교가 기독교를 위해 이루어낸 일도 많고 힘도 많았지만, 지금은 기독교학교가 예전보다 많이 힘이 없고 힘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연구할 때 자료를 많이 보았는데 기독교학교가 성경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가르치기 힘들다는 보고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K고교 같은 경우, 예전에는 서울 명문대를 50여 명씩 입학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입학성적이 삼류가 되어버리니까 기독교학교

전략

- ①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알기
- ② 전교인의 일대일 사역자화 하기
- ③ 살아있고 열려있는 구역모임 하기
- ④ 유청소년 사역의 활성화
- ⑤ 소규모 선교의 활성화
- ⑥ 사회복지사역과 환경사역의 활성화

를 입학을 꺼리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종교>라는 과목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종교 교과서를 만들 때 저도 참여했었는데 <성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교육부에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대상 학원을 누구로 하든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학교와 함께 주님의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의 삶을 모두가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앞으로 학원선교화에 대한 교계의 방향과 이정표를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나: 소규모 선교의 활성화

⑤ 소그룹 활성화가 선교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책임은 많이 알지만 그만큼 헌신을 잘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 사회복지사역과 환경사역의 활성화

⑥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역과 환경사역입니다. 교회가 중점적으로 같이 힘을 써서 복지와 환경 사역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면 주로 해외선교를 떠올리지만 한국 사회 속에서도 선교사역이 많습니다. 어떤 팀은 해외사역으로 나가고 어떤 팀은 한국사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 항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복지사역 중 노인 문제의 해결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주중에 노인들을 밖으로 보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 그 비용을 가족에게 반부담하고 교회가 반을 부담했습니다. 노인 분들은 모처럼 밖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서 좋고, 가족들은 또한 자신들의 시간이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교회 안나구역의 외출에서도 많은 분들의 활력을 본적이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본 교회는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또는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오직 주님을 위한 헌신하는 많은 주님의 가족들의 수고한 줄을 하나님을 알고 계실 것이다. 자신의 수고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할 필요도 없다. 20주년 행사가 끝난 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한다.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씨를 심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대담: 당회장 박원호 목사,

이강찬 목사, 신형섭 편집장, 하태원기자,

기록:채지민 기자 정리:하태원 기자

12단계 수요공부 1단계 종강



3월 6일부터 시작한 1단계 성경 공부는 총 14회에 걸쳐 강의가 있었다. 6월 11일에 1단계 종강을 하며 방학을 하였다.

2200여명이 등록을 하여 수요일과 토요일 새벽 강의와 인터넷 강의를 통해 보통 1300여명 이상이 강의를 들었으며 1100여명 이상이 1단계 수료를 하였다.

박원호 담임 목사는 시작이 반이라고 계속 12단계까지 서두르지 말고 산을 넘어가듯이 한발 한발 성경 공부에 참

석하자고 하였고 예배 후 식당에서 1 단계를 마친 작은 다과회를 가졌다. 2단계 성경 공부는 9월 첫 주 수요일에 시작 될 예정이며 열심히 참석하신 교우님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2단계 성경공부 지원팀)

교사의 날



5월15일 오후 4시부터 중예배실에서 주님의교회 교회학교 교사의 날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짝트네,유년부,초등부,소년

부,중등부,고등부,어와나,레인보우등의 모든 교회학교에서 교사와 자원봉사로 수고하시는 교우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4시부터 5시까지 타악 퍼포먼스 예끼와 포크송가수 둘 다섯의 공연이 있었다.

5시부터 식사와 소규모 행사(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카페, 행복의 사진관, 족구게임,보드게임,RC카레이싱)를 가진 후 찬양과 기도회로 교사의 날 행사를 마쳤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호 집사(8-10)

창립 20주년 맞이 교회와 학교교정 대청소

6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교인이 참여하여 대청소를 하였다.

교구별로 청소할 세부구역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항상 사용하며 누군가 청소를 해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직접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청소하며 교구식구들과 교제도 나누며 협동을 하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유리창 청소와 각층 계단과 화단 등 눈에 보이는 곳만이 아닌 쉽게 손이 안가는 곳을 꼼꼼히 청소하였다.

청소에 참여한 교우들은 예배만 드리고 집에 바로 가곤하여 이렇게 교회가 크고 부속실이 많은 줄 몰랐다고 성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귀한 기회가 되었다 한다.

어린이들이 유리창을 닦는 모습에서 주님의 교회 미래를 보는 것 같다 하며 자주 대청소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다고 하였다. (신형섭 기자)



080601-1부 대표기도- 20주년 기도문 중에서

목자되시는 주님! 20년전 너희가 주님의교회라 불러주시고, 초대교회의 모형이 되어 이 땅에 큰 영향력을 끼치라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손수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희 주님의교회가 인간교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길을 가고자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의 때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를 맞이하여 박원호 목사님을 목자로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사람 모두 가라지나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자연과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알곡으로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붉은 피로 정결케 하사, 저희 마음과 눈과 귀를 할렐받기 원합니다. 세상을 유월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읽기 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과 은사에 따라 열정적인 헌신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살롬,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해, 인재로 인한 태안반도 기름유출과, 최근에 미얀마의 폭풍과 중국 사천성 지진으로 자연의 훼손과 수십만의 인명이 매몰되는 재해를 목도했습니다. 만물이 신음하는 소리 가운데 아버지의 탄식과 주님의 애통하는 중보기도 소리도 들었습니다. 땅에 가득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천지만물을 다스리며 섬기라 하신 아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에 귀막고 눈막고, 오직 욕심에 눈이 어두워 이 땅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끔찍한 마음속 우상들과 온갖 욕심과 염려를 버리고, 오직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아버지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주님과 한마음 되어 이 땅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을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회숙 권사 (7-4)

나의 신앙 이야기

알곡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람입니다. 2008년 새해는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오는 8월은 제가 몸담았던 직장도 만 65세로 정년퇴임하는 해이기도 하고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은 ‘주님의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일이며 또 제가 장로로 임직 한지 만 10년(안식년 빼고) 되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 6개월은 나의 짧지 않은 인생 65년을 돌아보며, 매일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곤 한다.

암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때에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의 길목마다에서 함께 하셨던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이제는 확실히 알기에, 또한 창립일 부터 오늘까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모두를 목도케 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과 사랑을 알기에, 그 많은 사랑에도 아직 부족하기만한 저를 ‘장로’로 불러주시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시켜 주심을 알기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된 욕의 기도가 제게 이루어지기 원한다.

교우들의 기도에 힘입어 ‘정금’ 되기를 소망 해 본다. ‘알곡’ 되기를 소망 해 본다. ‘증인’ 되기를 소망 해 본다.

김경신 장로

길가에교회 이인호 목사 위임식



이인호 담임목사



길가에교회는 주님의교회가 첫 번째로 낳은 번식교회이다. 2005년 12월 11일에 이인호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하여 2년6개월이 지난 지금 이인호목사 위임식을 갖게 된다.

이인호목사는 주님의교회 개척초기부터 6년 동안 부교역자로 섬겼으며 영국 버밍엄대학교의 목회상담학석사(M.A.)와 목회리더십박사(Ph.D.) 학위취득 후 다시 주님의교회에서 부목사

로 사역하다가 2005년 12월 길가에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인호목사는 처음부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지도자를 일으키고 연합한 교회들을 부축하여 힘 있게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응대해가고 있다. 길가에교회는 더운 여름 지역사회에 얼음냉수와 같은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인호 목사 위임식

일시 : 2008년 7월 6일(주일) 오후3시

장소 : 길가에교회 대예배실(동화중고등학교 여호수아홀)